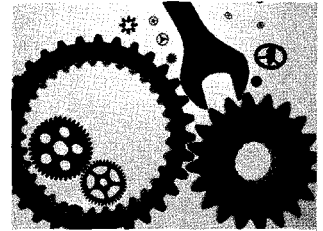


에이즈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에이즈로 노동력 상실, 국가 경제 위협

:: 신수린 본회 사업부장(번역·정리)

지난 7월 ILO(세계노동기구)는 제15차 세계 에이즈 회의 를 맞이하여 에이즈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회 세계 에이즈 회의의 주제인 '모든 사람에게 접근권을 보장하자(Access for all)' 라는 모토처럼 에이즈치료를 복용하지 못한다면 에이즈는 노동력 상실, 경제성장률 저하 등 향후 세계를 위협할 악재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ILO보고서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요약·번역하였다.



ILO보고서는 항바이러스제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1995, 2005, 2015년도에 에이즈의 영향을 대체적으로 많이 받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예측한 것이다. 분석대상이 되었던 나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아시아 5개국, 남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연안 8개국,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50개국이다¹⁾.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41개국²⁾은 에이즈로 인해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연간 GDP 성장률이 0.9% 둔화되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170억 달러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미국은 에이즈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변화가 보이지 않았

다. 만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에이즈 문제가 없었다면, 연간 1.4%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ILO 보고서는 에이즈를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는다면 노동 손실과 지속적인 경제 퇴보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 2천6백만 명이 에이즈 노동자

“노동인구”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 고용이 되어 월급을 받고 있거나, 자기 사업으로 이윤을 내고 있거나, 고용되지 않았으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인구에 속한 사람들 중에 HIV에 감염된 사람은 약 2천 6백만 명이다. 이 보고서는 2005년 말까지 전 세계 노동인구 중 HIV 감염자가 3천 6백 5

1) 앙골라, 베닌, 보스니아, 버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코트디보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잠비아,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스와질랜드,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중국, 인도, 미얀마, 태국, 비하르, 벨리즈,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구아나, 하티티, 온두라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러시아, 미국

2) 50개국에서 브라질, 중국, 인도, 미국, 태국, 우간다, 에리트레아, 미얀마, 라이베리아는 제외되었음.

십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5년에 이미 약 5십만 명이 에이즈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05년도에는 현재 노동인구 중 약 2백만 명이 에이즈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중의 78%가 아프리카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일 항바이러스 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2015년까지 약 7천4백만 명의 노동인구가 에이즈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또한 에이즈 고아의 양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에이즈 고아들의 가난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막대한 노동력의 손실은 사회와 다른 노동인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분석하고 있다.

에이즈로 아프리카 국가의 GDP 성장률 4~0.5% 저하

경제학자들은 에이즈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부터 '에이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에이즈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에이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평균 연간 GDP 성장률의 0.5~4%의 둔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결론내고 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인적자본의 파괴, 근로의욕의 약화, 에이즈 고아의 증가, 빈곤의 가속화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의 위협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감염인은 에이즈 진단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패턴이 있다.

평균적으로 18~24개월 정도 질병의 악화로 결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게 된다. 이는 미시경제(microeconomic)에 영향을 주는데 한 사람의 노동력 상실은 그 집안의 수입 손실을 가져와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빈곤가정은 증가하여, 국가경제는



1995년에 이미 약 5십만 명이 에이즈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05년도에는 현재 노동인구 중 약 2백만 명이 에이즈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중의 78%가 아프리카인일 것으로 보고되는 전망하고 있다.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점차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용률이 저하되어 국가경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II ()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로 인한 악영향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수명의 저하** 에이즈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평균수명이 성인 사망률의 증가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경우 성인 남자의 평균수명이 에이즈가 없었을 시기에는 약 70세였는데, 에이즈로 인하여 35세로 낮아졌다.
2. **직장인의 결근율(absenteeism) 증가** 이어지는 가속의 장래, 에이즈 환자 간혹, 자신의 에이즈로 인하여 결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인 사망률의 증가와 결근율로 인해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에이즈 감염인을 고용한 회사에서 가장 큰 손해는 결근율로부터 나온다.
3. **학교 시스템에 영향** 에이즈로 인해 아프리카의 학교 시스템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에이즈로 이원되는 연령대가 노동인구이므로, 이 연령대에 속하는 교사의 사망이 증가하면서, 교사의



숫자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교원대학에서는 학생의 부족으로 충분한 교사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코트디부와르에서는 교사 사망의 70%가 에이즈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 또한 집안의 에이즈 환자와 부모의 사망으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자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4. 의료계에 영향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남아프리카 병원 인력의 약 14%가 에이즈로 사망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보스와나에서는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17%의 병원인력이 에이즈로 사망하게 될 것이며, 만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지 못한다면, 2010년까지 약 40%의 병원인력이 에이즈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 농업경제에 영향 에이즈로 인한 노동 인구의 사망과 환자의 간병 등으로 농경작물을 적절하게 재배되지 못하고 때때로 수확을 할 시기에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수확되지 못한 채 그대로 농경지에 남겨지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식량의 보급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6.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영향 상기한 영향은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평가인 반면에, 축정이 어렵지만 경제를 지

탱해주는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도 영향이 미친다.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고용률이 가나에는 70~80%가 인도에서는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은 전체적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에이즈가 여성과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에이즈환자 간호와 경제활동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에이즈환자의 간호로 결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의 사망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고, 에이즈고아를 양산하여 가난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15세에서 49세 즉 노동인구의 에이즈 유병률이 7.7%나 차지하는, 아프리카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제15차 세계에이즈회의의 주제인 "ACCESS FOR ALL(모든 사람에게 접근권을 보장하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이즈로부터 개인, 가정,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염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인과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권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